

## 김 키버 *Abstract Image*'



만지고 싶은 사진을 발견했다. 바로 작가 김 키버의 작품이다. 화려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그의 사진은 부드러운 실크를 연상시킨다. 물과 물감만으로 완성된 이미지는 보는 이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작가 김 키버는 수조 속에 다채로운 색상의 물감을 풀어 넣어 이들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진으로 포착한다. 제어할 수 없는 물속에 제멋대로 흩어지는 색색의 물감. 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추상사진 예술의 세계로 초대한다.

■김현주 기자



김 키버 Kim Keever

작가는 올드도미니언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했다. 그는 1990년 <Art Redux>를 시작으로 <The Contemporary Landscape>, <Life/ke>, <Waterways>, <Land & Sea>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1992년부터 매년 꾸준히 개인전을 개최해왔다. 그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스스로 제작한 풍경을 사진으로 담은 작품을 비롯해 물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www.kimkeever.com](http://www.kimkeever.com)



**《Abstract Image》를 작업하게 된 계기가 있다.**

나는 원래 책상 위에 풍경을 제작해 이를 사진으로 담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늘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이 사진에는 공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진이 화상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중 물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내가 만든 풍경을 물속에 집어넣고 여기에 물감을 떨어뜨리니 구름이나 대기를 연상케 하는 재미있는 이미지가 나타났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한 이 시리즈는 내 작업 인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 작업했다.**

나는 색을 좋아한다. 풍경을 만들어 촬영할 때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제한돼 아쉬웠다. 하지만 이 작업에서는 어떠한 색상도 자유롭게 골라 사용할 수 있어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 방법 중 특히 물속에 잉크와 물감 안료만을 떨어뜨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좋아한다. 다채로운 색들은 물의 흐름에 따라 예상치 못한 패턴을 그리며 더욱더 신비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다.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내 작업의 매력이다. 항상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순 없을지라도, 매 번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은 가치 있다.

**작업에 영감을 주는 것이 있다.**

나는 평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자연적인 패턴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여기서 작업의 시작점을 얻는 셈이다. 다양한 색 배열을 통해 얻는 임의의 결과물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작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에서 찍는 사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물감은 물속에서 빠르게 확산된다. 때문에 무엇을 포착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시간이 부족하다. 뒤늦게 좋은 이미지가 될 장면을 깨달아도 한 번 지나가버리면 같은 장면을 재현해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촬영해 어떤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내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는 물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며 그 어떤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다.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다.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진은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와 같다고 생각한다. 화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케치한 뒤 이를 작품으로 확장시킨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나는 작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를 즉시 사진으로 담아낸다. 또 적당한 겸손과 자기 비판. 창의성은 항상 내 작업의 원동력이 돼 준다. 특히 창조는 내 작업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최근 관심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나는 사진으로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Abstract Image》 시리즈의 일부인 'Volumetric Series'를 위해 물속에서 물감으로 계속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물속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나서 물감의 색이 가장 강렬한 순간을 포착한다. 이는 촬영 도중에 갑자기 일어난다. 이 순간이 지나면 물감이 희미해지며 각 색 사이사이로 자유롭게 흘러 들어간다. 최종적으로는 짙은 회색 빛의 덩어리가 돼 버린다. 앞으로 나는 내가 제작한 풍경과 물을 접목해 새로운 장면을 구성해볼 것이다. ■

66 PHOTO+





59 Cambridge Place, Brooklyn, NY, 11238

[Tilloufineart.com](http://Tilloufineart.com)



59 Cambridge Place, Brooklyn, NY, 11238

[Tilloufineart.com](http://Tilloufineart.com)



59 Cambridge Place, Brooklyn, NY, 11238

[Tilloufineart.com](http://Tilloufineart.com)



59 Cambridge Place, Brooklyn, NY, 11238

[Tilloufineart.com](http://Tilloufineart.com)